

미국인 사장 임금·퇴직금 떼먹고 도주 1년

‘피코 아줌마’ 미국 원정시위 나선다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하청업체에 줄 물품대금까지 지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장문을 닫고 미국으로 도망쳐버린 피코 한국지사의 공장장에서 1년 이상 농성을 해 온 피코 여성 노동자 3명이 미국자본의 도덕성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오는 12일 미국에 도착한다.

유선 텔레비전 안테나를 생산해 온 피코 한국지사는 이 회사에 노조가 설립된 뒤 노동쟁의가 잦아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통보도 없이 지난해 2월말 회사문을 닫고 야반도주 하듯 한국을 훌쩍 떠나 버렸다.

그 뒤 대부분 주부들인 노동자 3백여명은 기계가 멈춘 공장

운영되고 있는 다른 미국기업에 더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항의편지를 피코 사장인 버나드 히치코크에게 발송한 것도 피코의 문제가 단순히 피코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이 편지에서 “피코사가 한국에서 취한 행위는 한국법에 저촉될 뿐더러 노동자들과 맺었던 계약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한국노동자들과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의 관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월 스트리트 저널>도 피코 한국지사의 갑작스런

이들의 방미를 적극 주선한 북미주한국인권연합(사무총장 패리스 하미 목사)을 비롯, 뉴욕 워싱턴 등 각지의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피코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미국에 ‘출정’하는 동안의 지원계획을 모두 마련해 놓았다.

피코 노동자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뉴욕 청년학교에 소속된 풍물패 ‘비나리’ 회원들을 앞장 세워 피코 본사 앞에서 본격적인 시위를 벌이고 미 의사당 앞에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뉴욕 시카고 등에서도 언론계와 상공회의소, 인권단체 등을 방문, ‘미국기업의 횡포’를 규탄하고 여론을 불러일으킬 세밀

3명 12일 떠나...주요도시 돌며 횡포규탄 계획

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1년 이상 농성을 계속해왔다. (<한겨레신문> 3월2일자 11면)

집안일마저 거의 팽개치다시피 한 이들 ‘피코 아줌마’들은 그동안 주한 미대사관, 주한 미상공회의소, 노동부, 국회 등을 찾아가 해결을 호소했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경찰의 폭력과 연행뿐이었다.

1년 이상 농성을 계속해오는 동안 피코의 문제는 단순한 한 미국기업의 횡포라는 차원을 넘어 제 권리를 찾으려는 한국 노동자가 거대한 미국자본에 도전하는 싸움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7명의 상원의원과 43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미 의회의 ‘국제노동자권리를 위한 미의회실무반’이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공장폐쇄 직후 “이 사건은 한국에 있는 미국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비엠(IBM), 모토로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은행이 격렬한 파업의 목표가 되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 뉴욕에 도착하게 될 3명의 피코 노동자들은 약 한달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피코 본사가 있는 시라큐스를 비롯, 뉴욕 워싱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을 순회하면서 피코 문제를 미국 사회에 여론화시킬 예정이다.

이들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권관련단체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리고 끝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시라큐스로 다시 돌아가 피코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할 준비도 마련해 놓고 있다.

북미주한국인권연합은 이같은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 4일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송, 피코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의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연합은 이 긴급서한에서 “피코사의 히치코크 사장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조차 않는다”고 비난하고, 피코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각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